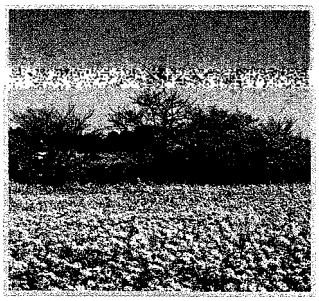
Contents

등급정보 365+ _ 2011 March Vol.175



표지사진
'제주의 봄'
제주지원 차장 김충익作

02 _ 칼럼
위기에서 다시 서는 양돈산업

04 _ 기획특집
국제곡물 가격동향과 가격변동 요인

06 _ 전문가심층분석
액란에도 3월 21일부터 등급표시가 있다!

08 _ 업체탐방 - 한우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한우왕'

09 _ 농가탐방 - 말
'말 도체 등급판정제도' 말 산업 발전 토대
청정제주마장 - 강경수 농가

10 _ 등급판정 통계자료 - 소

15 _ 등급판정 통계자료 - 돼지

18 _ 등급판정 통계자료 - 계란

19 _ 등급판정 통계자료 - 닭고기

20 _ 장보기 도우미
계란 등급제

21 _ 쇠고기 이력제 / 지역축산소식

23 _ 축산물품질평가원소식

축산물품질평가원

칼럼 | 위기에서 다시 서는 양돈산업

(사)대한양돈협회/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_
이병모 회장/위원장

위기에서 다시 서는 양돈산업

지난해 안동을 시작으로 발생한 FMD(구제역)로 살처분된 가축이 300여만두를 넘어서면서 1차적인 피해 보상액과 백신접종비, 관련산업 피해까지 고려하면 6조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앙'으로 대한민국 양돈업산업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

게다가 구제역 매몰로 인한 2차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로 인한 차가워진 민심으로 대한민국 축산업은 유사이래 가장 큰 경제적, 정신적 충격은 겪은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구제역은 산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말한다. '양돈산업재건위원회'에서 조사한 양돈산업 재건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93%의 살처분 피해 농장이 재입식을 희망하는 등 재기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또 이중 55% 농가에서는 시설개보수를 통한 농장 차단방역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축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번 FMD를 선진축산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면 양돈산업이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힘을 합쳐 하루라도 빨리 FMD를 종식시키고 이번을 계기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먼저 양돈농가들은 FMD 예방백신 접종 후 농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내 농장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농장 소독과 차단방역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FMD 종식 이후 양돈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업계만의 자구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구체적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살처분 농가의 후보돈 부족사태 해소를 위해 수입돈 검역을 위한 민간 검역시행장 지정 및 관세인하 조치 등 무너진 사육기반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내 FMD 바이러스 분리주를 이용한 백신을 생산 공급과 수입백신에 대한 효능검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대만의 경우 자국 내 유행하는 FMD 바이러스주를 제한 백신을 사용하여 2003년 백신접종 실시하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 최근 FMD 사태 속에서 국내 양돈산업의 조속한 재건을 위해서는 백신효능 향상과 향후 효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위기를 통해 국내 양돈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전산기록관리 정착, 차단방역 시스템의 새로운 정립, 시설현대화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생산성 저하 및 구제역 재발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적 종돈개량 체계 확립, 한돈 차별화, 권역별로 양돈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이 필요하다. FMD 백신접종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당분간 FMD 청정화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양돈협회는 앞으로 '구제역방역대책협의회', '양돈산업재건위원회' 등을 통해 양돈산업 재건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우리 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전 돈육산업계가 단결하는데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축산관련자를 비롯한 정부, 종사자의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 본 원고의 내용은 본지 편집의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